

A study on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 Focusing on the Holistic mission of Elizabeth J. Shepping

Young Mi Kim*
(Hannam University)

Abstract

Purpose of Research: This study aims to gain insights into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which is a part of 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 that contemporary Korean churches should establish, based on the holistic mission practices of missionary Elizabeth J. Shepping.

Research Content and Method: The study begins with a brief overview of the life of missionary Elizabeth J. Shepping, who experienced multicultural living in various countries, highlighting the prepared professional missionary within the context of her time. The study then examines the details of her holistic mission practices as a professional missionary.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in Korea is explored by understanding the background and research trends of multicultural Christian education that Korean society and the Korean church are currently facing. Practical aspects, supplementary points, and directions for the future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in the Korean church are also proposed.

Results and Conclusions: In conclusion, This study emphasizes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as a component of the pastoral paradigm that the Korean church needs to improve. Four practical directions are proposed: first, education for holistic service; second, education for social and public practice; third, implementation of public service education linked to the local community; and fourth, activation of dedicated service departments and training of professional leaders. However, the study acknowledges a limitation in not providing specific practical programs for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suitable for the Korean church context. Continuous research is necessary through various supplementary points in the future.

Key Words

Social believer, Holistic Mission, Professional Missionary, Multicultural Education, 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 Elizabeth J. Shepping

한국교회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성 연구 :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를 중심으로

김영미*
(한남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서서평선교사의 통전적 선교 실행을 기본으로, 현대 한국교회가 정립해야 할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한 부분인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에 대한 통찰을 얻기 위한 연구에 목적을 두었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먼저 여러 다문화국가에서 다문화 삶을 경험한 서서평선교사의 생애를 간략히 살펴보고, 시대적 배경을 통하여 준비된 전문인 선교사의 내용을 제시하였다.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통전적 선교실행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한국사회와 한국교회가 당면한 다문화 기독교교육에 대한 배경이해와 연구 동향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끝으로 미래 한국교회가 실천할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실천 부분과 보완점 및 방향성 연구를 제안하였다.

결론 및 제언 :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한국교회가 개선해야 할 목회 패러다임의 한 부분인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을 강조하며, 그 실천과 방향성 4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통전적 섬김의 교육이다. 둘째, 사회적·공적 실천교육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적 섬김의 교육실행이다. 넷째,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양성실행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회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대한 구체적인 실천 프로그램을 제안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여러 보완점을 통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한다.

〈 주제어 〉

사회적 신앙인, 통전적 선교, 전문인선교사, 다문화교육,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서서평

I. 들어가는 말

기독교는 자기희생적 섬김으로 기독교 정신을 실천한 인물들을 통해 사회 변화를 꾀하며 선한 열매들을 맺는다. 우리는 이러한 실천가들을 ‘사회적 신앙인’이라고 명명한다. 즉 하나님을 믿는 것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고자 앞서서 노력하신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김도일 외 9인, 2017, 5-11). 140여 년의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한국교회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인은 물론 민족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애쓴 여러 사회적 신앙인들의 삶의 발자취를 통해 지금까지 신앙의 대 잇기가 이어지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서서평(Elizabeth J. Shepping, 徐舒平, 1880-1934)도 그중의 한 분으로, 약 104여년 전 미국 남장로교 한국 선교부를 통해 조선에 입국한 간호 전문 선교사이다. 그러나 그녀는 간호사역뿐만 아니라 교육, 복음전도, 사회선교사역 등 통전적 선교실행에 전념하며 22년간 한국에서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섬김의 삶을 살아간 대표적인 사회적 신앙인으로 볼 수 있다. 본고는 이러한 서서평의 생애 및 통전적 선교실행 등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교회의 섬김에 대한 책임과 사명의 인식 전환 및 현대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의 기저로 볼 수 있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서서평의 생애와 통전적 선교실행

‘작은 예수’, ‘빈모의 어머니’라는 칭송을 받았지만, 서서평 자신은 ‘성공이 아니라 섬김(Not Success but Service)’을 삶의 원리로 삼고 평생을 조선 사람들을 위해 섬기며 삶을 마감했다(차중순, 2009, 96-124). 이러한 서서평의 삶의 원리는 독일, 미국 등 다문화사회에서의 생활, 경험, 훈련,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과정들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2년 동안 한국에서 그녀가 실천했던 모든 섬김의 삶과 통전적 선교는 오늘날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밑그림을 선명히 그릴 수 있는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러 배경이 되는 서서평의 생애와 주요 선교활동을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1. 선교사 이전의 서서평

“학자라 칭찬할 만큼 능숙한 언어를 사용하며, 명랑하고 열정적이었으며, 지나칠 정도의 한국인이었다”라는 회고처럼 진정한 한국인으로 거듭나고자 했던 서서평의 선교사 이전의 삶은 그리 순탄하지 못했다(백춘성, 1996, 32-33). 서서평은 1880년 9월 독일에서 출생하

였다. 일찍 세상을 떠난 아버지의 부재, 또한 어머니와의 결별된 상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서평은 독실한 가톨릭 신자인 외할머니의 보호 아래 성장하였다. 부모 없이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면서 외로움, 따돌림, 상실감 등을 받으면서도 할머니의 정성으로 그녀는 가톨릭 교구학교에 다녔다. 그러나 자신을 키워준 할머니가 사망하자 9살의 어린 나이에 독일에서 미국까지 홀로 어머니를 찾아가 영어권에서 교육받으며, 뉴욕에서 간호전문학교를 다니며 전문간호사로 그리고 사회봉사 활동가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양창삼, 2012, 82-107). 이때부터 서서평은 이민자 생활, 다문화 가정생활, 종교 개종, 전문인 양성과정교육 등 다문화 국가,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교육(multicultural education)을 받으며 다문화 사회인으로 적응하는 삶을 살게 된다.

한편 서서평이 교육받으며 자라던 시기의 미국은(1870~1970년도를 중심으로) 인구학적 특성과 갈등,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철학 등 다양한 측면에서 다문화교육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즉 소수 이민자 학생들의 낮은 학업 성취문제, 흑인 차별 대우 폐지논의, 여성주의 운동, 원주민과 토착민을 위한 정책 재검토 등의 내용에 영향을 받아 본격적인 다문화교육이 시행되는 시기였다(Bennett, 2011, 173-189). 특별히 1960년대부터 미국은 미국 역사의 전제로 받아들여졌던 미국만의 독특함과 단일성에 대한 가정을 무너뜨리는 계기를 맞게 된다. 즉 인종적, 계층적 갈등 등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갖게 되며, 인권, 여성, 반전, 저항 문화 등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미국과 미국인에 대한 종래의 편협한 인식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이후 소수인종과 민족, 여성, 흑인 및 노동계층 등 주변부 집단의 정체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과 더불어 소수집단의 역사를 연구하는 저서들이 쏟아져 나오고 미국의 다양한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정상준, 1997, 334-335). 이렇게 선교사가 되기 전 서서평의 삶과 시대적 배경은 그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선교와 다문화교육에 대한 준비된 사명자의 모습을 갖추게 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2. 한국인처럼,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인을 섬긴 서서평

다문화시대에 다문화 배경의 삶을 살았던 서서평은 그녀 나이 32살에 선교에 대한 강한 열망을 가지고 미국 남장로교를 통하여 간호 전문 선교사로 지원하며, 1912년 한국에 들어와 22년 동안 한국인들과 더불어 불꽃 같은 삶을 살게 되었다. 이러한 그녀의 삶과 선교활동에 대하여 여러 선교학자들과 교회사, 기독교교육, 교회공동체 지도자들의 분석은 다양하지만, 대표적인 내용으로 “전문인 선교사로서의 통적적인 선교실행”을 제시하고 있다(임희모, 2013, 186-188). 1912년 한일합방 직후 국방에 관한 권한을 잃어버린 가장 혼란스러

왔던 시기의 한국에 들어와 한국인처럼, 한국인과 더불어, 한국인을 섬기던 그녀에게 준비된 전문인 선교사의 내용과 통전적 선교실행을 통해 그녀가 남긴 영혼 사랑과 섬김에 대한 발자취를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전문인 선교사”(Professional Missionary)에 대한 내용을 살펴본다.

전문인 선교사의 사전적 정의는 “어떤 특정 분야에 전문가로서, 혹은 신분상 전문가의 형태를 띠고 타문화권에서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일컫는다. 이러한 전문인 선교사는 기본적으로 영혼 구원과 교회 개척, 사회봉사 등에 참여한다. 또한 전문인 선교사를 사도 바울의 예를 따라 ‘텐트 메이커(Tent-maker)’로 명명하기도 한다. 즉 직업적 능력을 갖추고 자비량으로 선교하는 것을 말한다. 임희모는 전문인 선교사의 유형을 패트릭 라이(Patrick Lai)의 이론을 적용하여 서서평을 “T-3 평신도 전문인 선교사”로 분류하여 제시하였다. 이렇듯 전문인 선교사는 선교훈련과 더불어 선교 단체로부터 후원과 관리를 받으며, 타문화권 종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서, 언어, 직업, 사역, 지역 등에 전문성을 갖춘 선교사이다(임희모, 2013).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서서평은 미국 남장로교회에서 파송 받은 전문인 선교사로서 당시 어려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전문 지식을 활용하여 다양한 선교를 시행하며 구령사업, 간호, 교육, 사회구제 및 사회개혁 선교에 큰 영향력을 준 전문인 선교사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서서평은 당시 일제 식민주의 시대에서 선교를 위해 3년여 동안 가장 먼저 언어훈련을 받았다. 병원 사역, 복음 사역을 위해 그녀는 열정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며, 교육선교를 위해 일본어 습득에도 열심을 냈다. 다른 한편으로는 한글을 잘 이해하기 위해 한자 공부를 하며 한문 성경을 읽고, 한국 문화의 기본적인 배경들을 이해하는데 언어의 전문성을 우선 순위로 잡았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간호 교과서라고 볼 수 있는 『간호 교과서』, 『실용 간호학』, 『간호요강』 등의 저술과 여러 외국 서적을 번역하는 등 언어의 탁월성을 보였다. 더불어 그녀는 선교사가 되기 이전부터 뉴욕에서 이민자들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과 정식 간호사로서 여러 병원과 요양소에서 수간호사 활동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 들어온 후 이러한 직업의 전문성은 그녀가 한국에 온 다음 바로 군산 구암 예수병원, 광주 제중원, 서울 세브란스병원 등을 통해 병원 간호와 간호사 양성 및 교육 실행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전문성은 이후 한센병 환자를 위한 사역, 국제간호협의회 사역으로 이어지며 국내, 국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임희모, 2013).

두 번째는, “통전적 선교(Holistic Mission) 실행”에 대한 부분이다.

통전적 선교는 복음 전도와 사회적 책임을 분리하지 않고 전인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선교를 수행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에 대한 논의는 스위스 로잔에서 모인 세계 복음화 국제대회(1974년)의 로잔언약을 계기로 명확하게 제시되었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과 명령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다(마 4:23-24). 즉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공생애의 핵심인 복음 전도와 사회참여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의미의 선교개념이다. 또한 통전적 선교는 선교적 교회(Missional Church)를 지향하는 선교신학이나 교회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 사항으로 여기며 연구하는 내용 중의 한 부분이며,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삶의 자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선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통전적 선교 실행은 22년 동안 한국에서 서서평의 삶에서 그대로 녹아져 그 열매들이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음을 여러 저술과 학술 자료들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다(최영근, 2018, 377-401). 즉 서서평은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회에서 요구하는 기본적인 선교, 즉 영혼 구원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억압과 차별의 벽을 허물기 위하여 교육선교와 사회선교를 각 공동체 현장에서 실행하며, 복음주의 선교와 에큐메니칼 선교를 조화롭게 아우르는, 통전적 선교를 실행한 평신도 전문선교사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본고에서는 대표적인 부분만을 발췌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서서평의 전기(傳記)의 한 부분에서 그녀는 미래 지도자들을 키우는 일을 좋아한다고 고백하였다. 이러한 소망은 1922년 한국 최초의 여자신학교인 이일학교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이 이일학교는 초기 한국 기독교 성장판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현재 한일장신대학교로 발전했다. 그런데 학교설립 초기의 구성원은 바로 여성 문맹자(or 이름 없는 여성들), 가난하고 소외된 여성들, 홀로된 여성들, 학령이 초과된 여성들이 중심이었다. 이것은 그녀가 미국에서의 여러 어려웠던 삶과 당시 미국의 인종차별, 여성 인권운동, 다문화교육 등의 영향이었음을 그녀의 담화를 통해 알 수 있다(양창삼, 361-390). 이일학교가 지방 여성 교육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면서 이후 교회 공동체 내의 여전도회, 부인전도회, 여성 성경공부과정, 확장 주일학교제도 등의 구성과 실행을 체계적으로 갖추며 그녀의 교육선교는 전국적으로 홍보되며 한국 교회사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다(최영근, 2012, 246-252).

한편 서서평은 지금으로부터 104여년 전, 1919년 3·1운동 당시 세브란스 병원에서 간호사 양성에 힘을 쏟으면서 한국인들과 같이 독립운동에 참여하여 부상당한 사람들을 치료해주며 당시의 조선인들과 같은 민족애를 갖고 최흥종 등 독립운동가들의 옥바라지까지 했다. 한국인이 아닌 선교사가 마치 한국인처럼 한국인들을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한국 민족의 아픔과 고통을 온몸으로 받은 것이다. 이러한 활동으로 인하여 일본의 핍박을 경험하면서도 그녀는 최초로 대한간호협회 전신인 조선 간호부회를 창립(1923년)하여 10여년간 회장직을 맡으며 세계 무대에 조선 간호부회를 알리고자 힘을 썼다(임희모, 2019, 349-350). 또한 미국의 대공황으로 선교부의 해외 지원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학생들과 같이 양잠과 직조 기술을 익혀 학생들의 학비를 조달하고, 수공예품을 만들어 미국에 수출하여 경제적인 자립정신을 도모하며, 남성중심의 사회에서 “금주로 구국하자”라는 운동과 나아가

공창폐지운동 등 사회개혁운동에 주력했다(양창삼, 125-154). 이러한 부분들은 교리적 배타주의와 서구 문화 중심의 제국주의적 태도의 한계를 뛰어넘어 철저하게 한국의 상황과 한국 문화와 전통 등에 자신을 동화시키기 위한 노력과 사회선교와 봉사에 대한 토착화, 상황화 선교 모델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으로 볼 수 있다.

Ⅲ.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를 통한 한국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성 연구

1980년대 후반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한국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225만 여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체류 외국인의 수는 한국 사회 전체인구의 약 4.37%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을 살펴볼 때 한국 사회는 자연스럽게 다문화사회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다(2022 출입국·외국인 정책 통계 연보, 2022, 12월 31일 기준).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의 다양한 다문화 상황들은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에 다문화 기독교교육(christian multicultural education)에 대한 새로운 인식의 전환을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교회와 기독교 관련 단체에서는 다문화교육의 필요성과 인식의 전환에 대하여는 인지하고 있으나, 다문화교육의 기본 인식 부재,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실제적 접근방법 부재 등으로 여전히 연구가 필요한 실정을 보이고 있다(김경식 외 9인, 2012, 129-130). 이에 연구자는 한국 초기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통전적 선교의 실행을 기본으로 한국교회가 우선적으로 정립해야 할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multicultural faith community education)의 방향성, 즉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기저(基底)에 대한 부분을 제시하고자 한다.

1.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배경 이해와 연구동향

1960년도 초기부터 미국과 유럽에서는 이미 “다문화 신앙공동체”(multicultural faith community)에 대한 학문적 용어가 제시되었다. 더불어 미국의 기독교교육학자인 찰스 포스터(Charles R. Foster)의 「다양성 포용: Embracing Diversity, (1997)」을 통해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이에 연구자는 포스터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이론을 핵심 배경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포스터(1937~)의 교육배경을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포스터는 미국 뉴욕에 있는 콜롬비아대학(Columbia University)에서 교육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또한 포스터는 스카릿대학(Scarritt College)에서 기독교교육학 교수로 재직하면서, *The Church in the Education of the public*(1984), *The*

Ministry of the Volunteer Teacher(1986) 등 다수의 저서를 출판한 기독교교육학자이다(고용수, 2006, 9). 더불어 캔들러(Candler) 신학대학에서 기독교교육학을 가르치며, 특별히 넬슨(Ellis C. Nelson)과 웨스터호프 3세(John H. Westhoff III)의 사회화 이론을 중점적으로 적용하여 '회중을 교육하는 것'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즉 포스터는 교회 안의 기독교교육 프로그램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개선함으로써 교회공동체 지도자들과 기독교교육 학자들과의 연대교육을 위해 사회화 이론을 교회교육에 적용하였다. 또한 포스터는 기독교교육 학자의 관점에서, 현대 교육의 장(context)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독교교육의 방법은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의 정체성을 유지 또는 개혁하지 못하고, 더 나아가 신앙공동체의 유산도 온전히 유지하지 못함을 지적하며(Foster, 1994, 11), 사회화과정을 교회교육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단초로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포스터는 앞에서 언급한대로 넬슨과 웨스터호프 3세의 영향을 받아 회중중심 신앙공동체교육이론을 주장한 학자였다. 즉 20세기 중반 기독교교육의 현대적 접근이론 중 하나인 신앙공동체 교육이론에 집중하였다. 구체적으로, 포스터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든 공동의식을 갖고 상호관계를 맺는 신앙공동체의 본질을 '신앙과 삶의 세대의 전수'라고 제시하며 신앙공동체의 본질을 다음과 같이 규명하였다. "첫째, 신앙공동체는 공동의식을 가져야한다. 이는 공동체 안에서 역사적 차원의 경험은 과거와 현재를 구별하는 지적인 훈련보다, 무의식적이며 심층적인 경험에 참여하는 의식을 의미한다. 여기서 신앙공동체의 구성원은 자아 정체감을 추구하는 틀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둘째, 신앙공동체는 상호관계성이 있어야 한다. 이 관계는 수평적 차원을 말하는데 이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맺어지는 타인과의 관계들까지 포함한다. 즉 공동체 구성원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는 상호관계성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셋째, 신앙공동체는 공동세대(Intergeneration)의 만남이 일어나야 한다. 여기서 공동세대는, 과거를 기억하는 세대, 미래를 꿈꾸는 세대, 현재의 능력을 활용하는 세대가 함께 만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공동체에서 공동세대는 함께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성장과 만남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 경험은 인종, 연령, 사회적, 경제적 계층 등이 사라지고, 모든 구성원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 되는 경험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신앙공동체의 본질에 대하여 포스터는 넬슨과 웨스터호프 3세의 이론에 기초한 회중교육(Educating Congregations)을 강조한 것이다(Foster, 1982, 30-44).

그러나 포스터는 점차 다문화교육, 다문화 신앙공동체, 다양성 등을 여러 저서들을 통해 중요하게 주장하였다. 대표적으로, 「흑인 청소년들과 일한다는 것, 그리고 흑인들이 받아온 기독교 교육의 여정(Working with Black Youth and The Christian Education Journey of Black Americans, 1985)」과 '교회교육에서의 인종 문제(Ethnicity in the Education of

the Church, 1987)', '다문화 종교교육(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1992)', 및 「우리는 교회이다: We Are the Church(1996)」, 「다양성 포용(Embracing Diversity, 1997)」등을 통하여 기독교교육이 서로 다른 문화적 전통 속에서 어떻게 구현됐는지 소개하였다(김영미, 2017, 340-341). 이러한 작품들은 다문화적 신앙공동체가 앞으로 어떻게, 어떠한 방향으로 삶의 자리에서 정의를 추구하면서 교회 공동체내에서 사람들을 어떻게 다양하게 포용할 수 있는지를 관찰한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두 작품 즉, 「우리는 교회이다」와 「다양성 포용」에서는 사회화과정을 통한 회중교육, 전통과 변혁의 통합교육, 다양성 포용교육, 이방인과의 연대교육, 학제 간 대화 및 공적교육, 간 세대 기독교교육 및 지도자교육 등 다문화적 신앙공동체의 실상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면서 다양성 포용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한편 국내에서는 김현숙(2008), 정정미(2009)에 의해 '다문화 신앙공동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언급되며, 2009년에 정정미는 "다문화적 신앙공동체 형성을 위한 교회의 교육적 과제"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교회공동체 내에서 건강한 다문화적 신앙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민족적 차별과 우월주의를 배격해야하며, 인종에 대한 다양성 포용, 사회·제도적 평등과 관용을 수용하여 교회의 공동체원들이 복음을 함께 나누고, 삶에서 다양한 섬김을 올바르게 실천할 때 비로소 올바른 다문화 신앙공동체가 이루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정정미, 2009, 281-305).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자는 다문화 신앙공동체는, 민족, 언어, 인종, 종교, 장애 등의 여러 유형의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며, 사랑과 정의, 화해, 평화 등을 실행하여 한 공동체원으로 연결지어져, 모든 사회적 계층을 초월한 공동세대가 되어야함을 본 연구에서 제안한다. 또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다문화 신앙공동체에서 실행되고 있는 교육이 바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임을 제안한다(김영미, 2017, 338).

또한 한국에서는 일반 다문화교육이 2000년 초부터 제시되기 시작했다. 다문화교육이라는 용어도 2000년 이후 다양하게 언급되었고, 본격적인 연구 진행은 2007년부터 시작되었다. 대다수의 다문화교육은 다문화사회를 구성하는 소수 이주민들의 한국 적응교육에 맞춰지고 있는 실정이며, 기독교교육 관점에서의 다문화 기독교교육 또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을 다룬 연구들은 2000년 이전에 제시된 정정미(1996), 정웅섭(1997) 논문이 대표적이며, 이후 2003년부터 2018년도까지 한국 연구재단(NRF)에 등록된 논문들을 살펴보았을 때, 석사학위 105건, 박사학위 36건, 통합 141건으로 제시되었다. 등재 후보지와 학술지에서는 134여건 등으로 제시되었다. 이러한 통계는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연구 및 기독교교육 연구가 여전히 미비함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연구자는 한국 초기 간호전문인 선교사로 한국에 들어와 성공이 아닌 섬김의 좌우명과 더불어 삶에 제시된 통전적 선교실행의 모델인 서서평의 발자취를 재구성하여, 오늘날 변화와

발전 및 연구를 요구받는 한국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방향성을 재조명하고자 한다.

2. 통전적 선교를 통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실천과 방향성 연구

서서평 선교사가 파송 받아 입국한 1910년대의 선교 상황은 여러 측면에서 다양하게 변화되었다. 즉 100여년 전의 선교는 복음으로 비기독교 국가나 문화를 기독교 문화로 만들고자 다분히 의도적이였다. 그 자체내에서도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인 동기들이 상당히 내포되어 있었다(임희모, 2013, 201). 또한 기독교 국가와 비기독교 국가를 이분법적으로 비교하며 국가 단위의 선교 실행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그러나 현대의 선교이해는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재해석된 복음을 전파하거나 복음을 삶의 현장과 어우러지는 즉, 토착화하는 선교로서 문화적, 상황적, 토착화 선교를 실행하고 있다(임희모, 2019, 344-348). 이에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사회로 전환되어 감에 따라 점증하는 다민족, 다종교, 다문화사회 현상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에 대한 신학적, 선교학적인 바른 이해를 요청하며, 선교 현장의 확대, 즉 그리스도인이 속해 있는 삶의 현장, 일상의 삶을 더 넓은 선교의 장으로 변화될 것을 요청한다. 그러므로 선교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또는 특정 시간에 수행하는 어떤 일시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 자체를 선교 현장으로 인식할 것을 요구하며,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지역사회에 변화를 끼치는 공격선교, 전문인 선교실행을 기대하고 있다(한국일, 2012, 108). 이러한 최근의 선교이해는 마치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통전적 선교의 내용과 같은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는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이제 한국교회가 지향해야 할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실천과 방향성에 대하여 몇 가지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통전적인 섬김의 교육’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섬김의 실천으로부터 형성되는 공동체의 고백, 돌봄, 응답, 증거의 행위들은 교회의 존재 이유와 존재 양식의 방향을 제시하는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소들은 결국 생명을 살리는 신앙공동체를 이루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으로 연결되어진다. 그러나 처음 예루살렘교회가 본을 보였듯이, 서서평 선교사의 22년간의 삶으로 본을 보였듯이, 섬김만 강조하고 실천하는 단순한 구조가 아닌, 섬김과 케리그마(예수 그리스도의 몸소 실천하신 섬김의 메시지 선포), 섬김과 디다케(섬기는 삶으로의 변화를 일으키는 배움), 섬김과 레이투르기아(하나님의 계시와 인간의 응답이 만나는 예배), 섬김과 코이노니아(공동체의 나눔 영성)가 상호 연결된 구조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임영택, 2009, 271-277). 결국 이러한 통전적 섬김의 교육으로의 방향 전환과 자리매김은 기존의 전통적 교회공동체의 문제점 즉, 삶과 삶, 이론과 실천, 교회와 사회, 개인과 공동체의 분리 및 신앙정체성 부재 등에서 초래

되는 혼란, 갈등, 분쟁의 요소들을 완화시키며, 신앙공동체의 올바른 가치관, 바른 영성, 바른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전인적, 통전적인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에 대한 기초를 제공하며, 온전한 신앙교육의 단초를 제공해 주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사회적 · 공적 실천교육’으로 방향 전환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 신뢰의 상실, 공교회성의 상실과 더불어 미래교육에 희망이 없으며, 상식이 통하지 않고, 자정능력이 고갈된 한국교회를 향한 다수 비판의 목소리는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문시영, 2010, 153). 정말 한국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일까? 교회가 교회되게, 다음세대들이 희망을 품고 하나님 나라 구현에 힘쓰도록 신앙과 교육의 장이 회복되려면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부분들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사회적 · 공적 실천교육’으로 볼 수 있다. 교회의 연례행사로 이루어지는 단순한 섬김과 봉사가 아닌, 19세기와 20세기 초, 개인 구원과 민족과 사회를 위해 헌신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앙인들의 사회적 · 공적 섬김과 같이 현대 한국교회와 교육목회 현장에서는 그 신앙인들의 실천적 섬김이 회복되어야 할 것이다. 즉 교인 수를 늘리거나, 교세를 확장하려는 편협한 목회 현장이 아닌, 진정으로 이웃과 사회를 향한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공적 책임을 실천하는 장이 되어야 하며, ‘타자를 위한 교회’를 뛰어넘어 ‘타자와 함께하는 교회’를 지향하며 보다 적극적으로 실행에 임하는 신앙공동체교육 현장의 회복이야말로 다음세대에게 해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한줄기 희망이 될 것이다(김도일 외 13인, 2017, 241).

특별히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적 섬김의 교육실행’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김도일은 “교회는 지역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하는 신앙공동체이며, 동시에 지역(마을 또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함께 함의 정신을 퍼뜨리는 생명공동체, 생활공동체로서 십자가의 정신을 실천해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에 대한 내용들을 강조하였다(김도일, 2016, 51). 이처럼 교회와 지역사회에 대한 부분은 더이상 분리해서 볼 수 없는 즉, 한 몸 공동체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맥락으로 볼 때,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적 섬김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실행은 교회공동체의 당면한 과제로 볼 수 있다. 더불어 한국교회는 한국의 지역사회와 한국교회의 목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한국형 교육목회 활성화를 위한 섬김 사역’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초기 근대화에 영향력을 끼친 사회적 신앙인들도 한국의 상황에 맞는 섬김 사역과 섬김 교육을 이행하였으며, 현재 섬김 사역의 모델교회 지도자들 또한 한국의 분단 상황과 지역의 상황을 고려하며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 실행들의 열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서서평은 평신도 전문 선교사로서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며 이웃과 함께하는, 지역사회와 연계한 공적 섬김을 통해 사회 변화에 기여하며,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누며, ‘함께 존재하고:being with others, 함께 실천하고:doing with others, 함께 소망하기:hoping to pray with others’를 평생의 삶을 바쳐 실천한 신앙인의 모델로 볼 수 있다(김영미, 2017).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의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은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양성실행’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섬김을 통한 신앙공동체교육 활성화의 실천 여부는 사실상 담임목회자의 의식과 목회비전, 교육역량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부분은 개별적인 교회의 목회계획들을 살펴보면 쉽게 수긍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만큼 개교회 중심의 한국교회의 섬김과 관련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비중은 상당히 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양성실행’은 변화하는 시대에 섬김을 통한 신앙공동체교육 활성화의 성패를 좌우하는 필수적인 실천과제로 볼 수 있다. 먼저 섬김에 관련된 전담부서 활성화에 대한 부분에서는 ‘전담기구 구성’으로 볼 수 있다. 개 교회별로 전담기구를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확장해서 살펴본다면 개 교회, 노회, 총회, 교단별 전담기구, 중립적 전문기관 등의 기구와 상호협력 운용은 시간과 공간, 거리와 나이, 국가와 인종, 조직과 신앙의 경계를 넘나들며 글로벌화를 가속화하는 웹 3.0과 웹 4.0 시대를 맞이하는 다음세대를 향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기본적인 작업으로 볼 수 있다. 한편 ‘전문지도자 양성실행’부분에서는 보다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섬김과 봉사를 위한 ‘지도자 역량개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이론과 현장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중, 장기적으로 볼 때 섬김의 신앙공동체교육 활성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담임목회자를 비롯하여 관련 담당 교역자들은 섬김에 대한 비전과 체계적인 교육과정 등 전문지식과 능력배양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현재 일반대학 및 신학대학교 내에서는 수년 전부터 다문화 지도자양성과정, 생명목회연구소, 글로벌현장교육원, 평생교육원, 기초·인성교육센터 등을 통해 전문적인 봉사 및 섬김 지도자 양성에 매진하고 있다(김도일 외 13인, 2017, 243-245). 이러한 내용들은 결국 서서평 선교사가 보여준 준비된 전문선교사로서의 자질로부터 그 사례를 보여주고 있으며, 교회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복음적 삶을 따라 사회와 이웃을 향하여 섬기는 자로의 사명을 다하는 역할로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내용들을 통하여 본 연구자는,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실행은 1934년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까지 이어져, 그리고 미래의 다음세대까지 연결되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의 마중물교육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하나님 나라 구현을 위한, 모두(타자)를 위한 포용교육의 실행 즉,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 기독교교육의 실천 및 적용까지 영향이 미치게 됨을 본 연구자는 제시한다.

IV. 나가는 말

한국교회는 이미 20여년 전 부터 성공주의 변영신학, 기복신앙, 성직세습, 교회학교 인원 감소, 세대 간 단절, 신앙공동체의 정체성 혼란 등 기존의 문제점으로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다. 또한 한국교회의 신앙공동체현장은 또다시 다문화사회, 인공지능 등의 변화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받고 있다. 현 상황에서 목회 패러다임 전환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이러한 변화에 지도자들과 구성원들은 한국교회와 신앙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대안들을 모색하고, 그 내용들이 다음세대의 신앙의 대 잇기와 삶의 장에서 어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가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다음세대들은 이미 다문화사회 구성원이며, 4차 산업혁명시대 변화의 주인공이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자는 위에서 언급했던 서서평의 섬김의 삶과 통전적 선교실행을 통하여 한 대안을 제시하고자한다.

즉 서서평의 다문화적 삶과 교육 및 통전적 선교실행을 통해 한국교회와 여러 신앙공동체는 가장 기본이 되는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에 새로운 변화를 꾀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이미 다루었던 ‘통전적인 섬김의 교육’, ‘사회적·공적 실천교육’, ‘지역사회와 연계된 공적 섬김의 교육실행’, ‘섬김의 전담부서 활성화와 전문지도자 양성실행’에 대한 내용들을 통해서이다. 그런데 섬김을 기본으로 제시한 이러한 내용들이 과연 한국교회가 당면한 여러 변화들에 대해 얼마만큼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104여년 전 서서평도 고민했을 것이다. 그러나 서서평은 지배보다 협력을, 편견이 아닌 이해와 수용을, 그리고 다름의 존중으로, 또한 명예와 권력이 아닌 겸손과 섬김으로, 비움과 낮아짐으로, 더불어 한국의 토양 안에서 조랑말을 타고 다니면서 십자가 진리와 복음의 씨를 뿌렸다. 보리밭과 된장국을 먹으며 고무신을 신고 살면서도 고아들을 위해, 문맹자들을 위해, 한센병자들을 위해,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 성공이 아닌 섬김의 씨뿌림의 삶을 살았다. 그런데 100여년 후 그 씨앗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던 싹이 나고, 열매들이 맺히고, 꽃이 피어났다. 이와같이 섬김을 통한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 안에는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차별성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진리 안에서 인간의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자 역할을 할 것이다. 그리고 전 세대를 살리고 번성케하는 신앙공동체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한 단초를 품고 있다. 때문에 서서평의 섬김의 삶과 통전적인 선교실행은 현대 한국교회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들과 다문화 신앙공동체교육에 대한 도전과 대안 방안의 한 실마리가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이제부터 우리가 뿌리는 섬김, 통전적인 선교, 교육 등은 앞으로 100여년 뒤에는 어떠한 열매들로 맺혀질까? 기쁨의 단을 거둘 때까지 한국교회는 부지런히 눈물과 인내로 씨를 뿌려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식 외 9인. (2012). **다문화사회와 다문화교육**. 서울: 신정.
- [Kim, K. S. et al. 9(ed.) (2012). *Multicultural society and multicultural education*. Seoul: shinjeong.]
- 김도일 외 9인. (2017). **사회적 신앙인의 발자취**. 서울: 동연.
- [Kim, D. I. et al. 9(ed.) (2017). *In the footsteps of a Public Faith Models*. Seoul: Dongyeon.]
- 김도일 외 13인. (2017).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교육목회**. 서울: 기독한교.
- [Kim, D. I. et al. 13(ed.) (2017). *An Educational ministr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Seoul: Kidok Hankyo.]
- 김도일 (2016). 지역공동체로 나아가는 기독교교육. **기독교교육논총**, 47, 51-93.
- [Kim, D. I. (2016). Christian education moving towards local communitie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47, 51-93.]
- 김영미 (2017). 포스터의 신앙공동체 이론을 통한 다문화 기독교교육 모델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51, 329-364.
- [Kim, Y. M. (2017). A Study of christian multicultural education models based on Foster's theory of faith community.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1, 329-364.]
- 문시영 (2010). **교회 안에서 시작하는 공공성**. 서울: 킹덤북스.
- [Moon, S. Y. (2010). *Publicity starting within the church*. Seoul: Kingdom Books.]
- 백춘성 (1996). **천국에서 만남시다**. 서울: 대한간호협회 출판부.
- [Baek, C. S. (1996). *Let's meet in heaven*. Seoul: Korean Nursing Association Press.]
- 양금희 (2015). 한국최초 여성 기독교교육학자, 주선애의 공적 기독교교육 사상과 실천에 관한 연구. **장신논단**, 47(4), 279-309.
- [Yang, G. H. (2015). A study on the first woman scholar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Chou sun-ae's idea and practice of public Christian education. *Korea Presbyterian Journal of Theology*, 47(4), 279-309.]
- 양창삼 (2012). **조선을 섬긴 행복**. 서울: Serving the People.
- [Yang, C. S. (2012). *Happiness in serving Joseon*. 서울: Serving the People.]
- 임영택 (2009). 섬김의 공동체로서의 교회와 교육목회. **기독교교육정보**, 22, 261-291.
- [Lim, Y. T. (2009). The church and the council of education as a community of service. *Korea Society for Christian Education & Information Technology*, 22, 261-291.]
- 임희모 (2019). 토착화 선교사 서서평의 사역. **선교와 신학**, 48, 335-366.
- [Lim, H. M. (2019). Ministry of indigenous missionary elisabeth j. shepping. *Mission and theology*, 48, 335-366]
- 임희모 (2015). **서서평, 예수를 살다**. 서울: 케노시스.
- [Lim, H. M. (2015). *Elizabeth j. shepping, live Jesus in peace*. Seoul: Kenosys]
- 임희모 (2013). 전문인선교사 서서평의 통전적 선교 전략과 영성. **신학논단**, 74, 183-212.
- [Lim, H. M. (2013). The holistic mission strategy and kenotic spirituality of professional missionary elisabeth j. shepping. *Theological Forum*, 74, 183-212.]
- 장신근 (2011). **공적신앙을 양육하는 교회와 가정교육**.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출판부.
- [Jang, S. G. (2011). *Church and family education that fosters public beliefs*. Seoul: PUTS Press.]
- 정상준 (1997). 포스트모더니즘, 실용주의 그리고 다문화주의. **미국학연구소**, 20, 334-335.
- [Jung, S. J. (1997). Postmodernism, pragmatism and multiculturalism. *American Studies Institute*, 20, 334-335.]
- 차종순 (2009). 호남 기독교 영성의 원류를 찾아서(III). **신학이해**, 37, 96-124.
- [Cha, J. S. (2009). Finding the origins of honam Christian spirituality (III). *Understanding theology*, 37, 96-124.]
- 최영근 (2018). 엘리자베스 웨핑과 목회적 영성에 관한 고찰. **한국기독교신학논총**, 110, 377-406.
- [Choi, Y. G. (2018). A study on the pastoral piety of elizabeth j. shepping. *Korean Journal Christian Studies*, 110, 377-406.]
- 최영근 (2012). 미국 남장로교 여성교사 엘리자베스 웨핑의 통전적 선교 연구. **한국기독교신학논총**, 82, 231-261.

- [Choi, Y. G. (2012). The holistic mission of elizabeth j. shepping, R.N., Southern Presbyterian (PCUS) Woman Missionary in Korea, *Korean Journal Christian Studies*, 82, 231-261.]
- 한국일 (2012). 한국적 상황에서 본 선교적 교회-지역교회를 중심으로. *선교와 신학*, 30, 75-115.
- [Han, K. I. (2012). Missional church in the view point of the Korean Local church. *Mission and theology*, 30, 75-115]
- Banks, J. A. (2006). *Race, culture, and education*. New York: Routledge.
- Banks, J. A. (2006). *Cultural diversity and education: Foundations, curriculum, and teaching*. Boston: Pearson/Allyn and Bacon.
- Banks, J. A. & Banks, C. A. M. (2005). *Improving multicultural education: Lesson from the intergroup education movement*.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Banks, J. A. (2002). *An introduction to multicultural edu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Banks, J. A. (1996). *multicultural education, transformation knowledge, and action: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erspectives*. New York: Teachers College Press.
- Barbara, W. (1997). *Multicultural religious education*. Religious education.
- Bennett, C. I. (2007). **다문화교육 이론과 실제**. 김옥순 외 9인 역(2011). 서울: 학지사.
- [Bennett, C. I. (2007). *Multicultural education theory and practice*. Kim, O. S. et al. 9(ed.) (2011). Seoul: Hakjisa.]
- Benson J. & Jack H. (1978). *Becoming family*. Winona, MN: Saint Mary's College Press.
- Foster, C. R. (2007). Cultures matter. *Religious Education*. 102, 2: 120-123.
- Foster, C. R. (2005). *Educating clergy: teaching practices and pastoral imagination*. Jossey Bass.
- Foster, C. R. (2004). Religious education at the edge of history. *Religious Education*. 99, 1: 72-78.
- Foster, C. R. (2003). *Black religious experience: conversations on double consciousness and the work of grant shockley*. With fred smith. Abingdon Press.
- Foster, C. R. (2003). Where shall we sit? the vocational conversations of a religious educator. *Religious Education*. 98, 3: 311-330.
- Foster, C. R. (2002). Diversity in theological education. *Theological Education*. 38, 2: 15-38.
- Foster, C. R. (2000). Why don't they remember? reflections on the future of congregational education. forging a better religious education for the third millennium. *Religious Education*. 89-112.
- Foster, C. R. (1997). *Embracing diversity: leading multicultural congregations*. The Alban Institute.
- Myers, W. (1991). *Black and white styles of youth ministry: two congregations in america*. New York: Pilgrim Press.
- Nelson, C. E. (1988). *Congregations : their power to form and transform..* Atlanta: J. Knox Press.
-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 월별통계<<http://www.immigration.go.kr>> 2023.11.30. 인출.
- [MINISTRY OF JUSTICE. REPUBLIC OF KOREA. <<http://www.immigration.go.kr>> 2023.11.30.]